

2022 노회찬재단
연례보고서

2022
ROH HOE-CHAN
FOUNDATION
ANNUAL REPORT

목차

- 1 재단소개⁵
- 2 인사말⁶
- 3 연보⁸
- 4 운영보고¹²
 - 회원현황
 - 재정현황
- 5 사업보고¹⁴
 - 노회찬정치학교
 - 나라비전만들기
 - 추모사업
 - 노회찬아카이브 구축 및 노회찬평전 출간 사업
 - 회원사업
 - 노회찬상
 - 6411사회연대사업
 - 소식지 〈민들레〉
- 6 재단사람들⁴⁸
- 7 후원안내⁵⁰





재단소개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노동존중 사회와 선진복지국가 실현.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은
노회찬의 꿈과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9년 1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그가 그랬듯이 재단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노회찬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걸동무가 되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걷는 길, 함께 꾸는 꿈,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회원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hcroh.org>
- 이메일 hcroh6411@naver.com
-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01동 1501호
- 전화 02-713-0831
- 팩스 02-713-0830
- 문자(수신전용) 010-8356-6411

후원계좌

- 농협은행 301-0243-3091-41
- 국민은행 463501-01-281299
- 예금주 (재)평등하고공정한나라노회찬재단

온라인 후원하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부터 3기 이사장을 맡게 된 조승수입니다.

먼저 후원회원님들과 노회찬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때가 되면 한 해가 가고 새해는 오지만 먼저 하늘의 별이 되신 노회찬 대표님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한 것은 저만의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시대적 격랑 속에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민초들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등대를 찾듯이 노 의원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승수

노회찬재단은 벌써 3기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기, 2기의 조돈문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님들의 노고와 재단 상근자들의 노고, 그리고 후원회원님들의 응원 속에 재단은 어려움 속에서도 안착되어 왔습니다.

한층 젊어진 3기 이사회는 노 대표님의 기록 정리, 정치학교, 나라비전 만들기 등 재단의 3대 사업 방향을 더욱 가다듬는 가운데 재단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제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감염병, 요원한 한반도 평화, 심화되는 불평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후재난, 끝없이 재생산되는 사회적 갈등은 지금의 사회적 격변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회찬 재단은 창립 정신으로 다시 각오를 다지며, 수많은 6411 버스 속의 사람들처럼 지치고 힘들 때 함께 비를 맞고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될 것입니다.

재단의 원동력은 노 대표님의 삶과 그를 그리워하는 후원회원님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입니다. 이분들이 더욱 가까이서 느끼고 함께 호흡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월

- 신년 참배 및 시무식(마석모란공원)
- 재단창립 3주년 기획 “마음으로 그린 노회찬: 상장상패류” 전시
- 다큐영화 <노회찬6411> 관객과의 대화 및 IPTV/VOD 오픈



2월

- 제3회 노회찬상 시상식
- 6411사회연대포럼, <대전환기, 노동·복지정책을 묻는다> 토론회 공동주최



5월

- 노회찬정치학교 기본과정 3기 개강 및 입학식
- 한겨레신문&노회찬재단 공동기획 <6411의 목소리> 연재 시작
- 정기강연 <월간 노회찬> 2회 전해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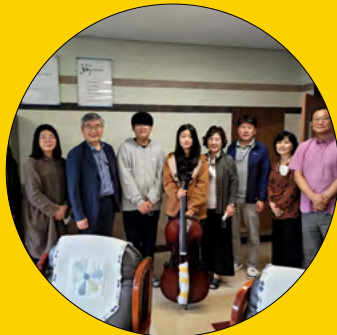
6월

- 제4회 후원회원 함께데이, 영화 <미싱타는 여자들> 관객과의 대화
- 정기강연 <월간 노회찬> 3회 박정훈 위원장
- 한국정당학회 2022 하계 학술대회 <한국 반지성주의 정치의 구조 및 형태와 극복방향> 세션 공동주최



7월

- 노회찬정치학교 기본과정 3기 졸업식
- 4주기 추모주간 <노회찬의 시선, 2022> (7.4.-7.23.)
- 제1차 쉽지않은사업, ‘봉제인지회 워크숍’ 지원(우리밀연수원)
- 노회찬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10명)



10월

- 강원북원중학교 악기 전달식
- 제5회 후원회원 함께데이, 영화 ‘학교가는 길’ 관객과의 대화
- 노회찬 정치학교 심화과정 2기 개강 및 입학식
- 정기강연 <월간 노회찬> 5회 박경석 대표

**3월**

- 3.8 세계여성의 날, <노회찬의 장미꽃> 나눔 캠페인
- 재단 대구모임, 대구경북여성대회 노회찬장미꽃 나눔 캠페인
- 상하이 회원모임, 여성의날 다큐영화상영회 및 노회찬장미꽃 나눔 행사

**4월**

- 제3회 후원회원 함께데이, 영화 <너에게 가는 길> 관객과의 대화
- 정기강연 <월간 노회찬> 1회 박찬수 대기자

**8월**

- 재단 고문단 연례모임

**9월**

- 924 기후정의행동 캠페인
- 노회찬평전 집필 완료 (2023년 5월 발간 예정)
- 정기강연 <월간 노회찬> 4회 김동춘 교수

**11월**

- 네팔 뽕밭학교 교복 보내기 (봉제인공제회, 노회찬재단, 전태일재단)
- 정기강연 <월간 노회찬> 6회 권지현 작가
- 레드어워드 시상식(산재일기 수상)
- 제2차 씬지원사업, '오늘의 여성 심신단련 프로그램' 지원(강원도 고성)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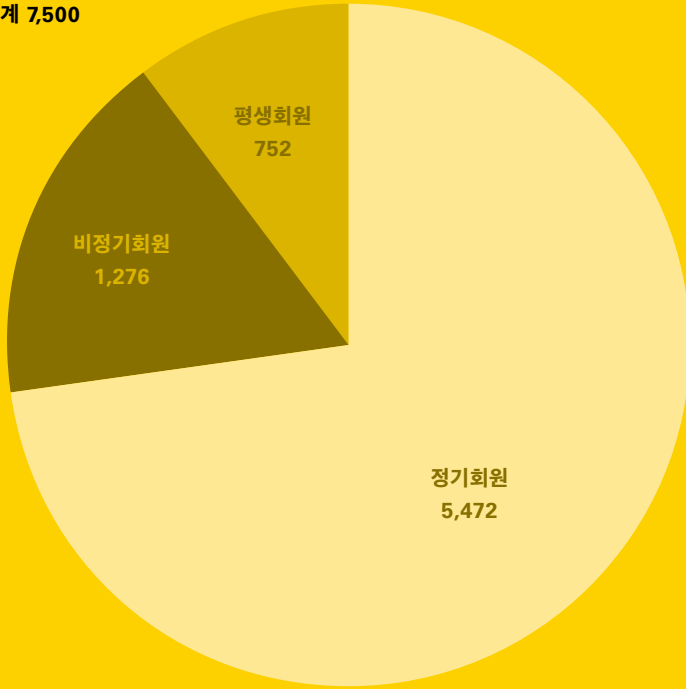
- 노회찬정치학교 심화과정 2기 졸업식
- 제6회 노회찬재단 함께데이 <꽃다지 콘서트>
- 기후위기 공동토론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노회찬재단)





후원회원 현황

계 7,500



목적사업기부금현황

공간마련기금	1,560,000
노회찬상	15,000,000
노회찬정치학교	10,000,000
노회찬장학금	20,000,000
추모연극 산재일기 제작	12,410,300
복리후생지원	7,000,000
비전사업	10,000,000
전국민불평등여론조사	10,000,000
계	85,970,300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

전기이월	224,094,202
후원금	812,830,190
사업수입	15,956,376
목적사업기부금	85,970,300
사업수입외	77,651,867
수입계	1,216,502,935

지출

사업비	285,367,748
운영비	526,062,109
공간마련기금	76,932,000
예비비	—
차기년도이월금	328,141,078
지출계	1,216,502,935

지출 현황

사업비	아카이브 및 출판	7,639,620
	비전만들기	18,735,210
	정치학교 및 교육사업	39,198,248
	기획사업	67,655,410
	추모사업	19,007,520
	사회연대사업	1,608,100
	사회공헌 및 나눔과돌봄	49,878,943
	홍보사업	4,055,868
	공간마련위원회운영 및 재정사업	14,832,495
	회원사업	62,756,334
운영비	재단운영비	54,913,973
	인건비	471,148,136
공간마련기금	다큐영화투자회수금적립	—
	공간마련적립금	76,932,000
예비비		—
차기년도이월금		328,141,078
	지출계	1,216,502,935

노회찬정치학교에는 노회찬의 정치교육에 대한 꿈이 담겨있습니다. 노회찬정치학교는 노회찬 의원의 정치철학을 계승할 정치·시민사회의 리더를 양성하고 지원하며,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는 시민을 위한 학습의 장을 제공합니다.

노회찬재단은 창립 이후 9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2019년 10월 노회찬정치학교를 개설했으며, 매주 토요일 15주간 교육과정을 통해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상황에도 정치학교 2기(23명 졸업), 심화과정 1기(10명 졸업)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생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했던 노회찬 의원의 발자취를 보여주듯 청소년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정치학교 1기

2019.10.26~2020.2.8
매주 토요일 15주간
등록 30명, 수료 21명
후속 프로젝트 지원



정치학교 2기

2020.10.17~11.28
매주 토요일 7주간
전 과정 비대면 수업
등록 26명, 수료 23명



심화과정 1기

2021.4.24~5.29
매주 토요일 6주간(비대면)
전현직 지방의원과 정책수립 진행
등록 10명, 수료 10명

1 노회찬정치학교

“2009년 노회찬마들연구소에서, 2016년 창원 선거 끝나고 바로, 그리고 노회찬정치학교까지 노회찬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교육을) 세 번 시도했다. 앞선 두 번 모두 그(노회찬)와 함께 몇 달에 걸쳐 모색만 하고 실행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가 없는 가운데 실행했고 그의 꿈을 조금이나마 이룬 것 같다” - 정치학교 1기 졸업식에서, 조현연 초대 교장

노회찬정치학교는 4년 차를 맞이하여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봄엔 기본과정 3기, 가을엔 심화과정 2기를 개설하여 처음으로 한 해에 두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전 과정을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였고, 프로그램도 강의&토론 수업에 더해 수강생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모둠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모둠 결과

- 6411노동자와 기본권 팀 _ “대학 청소노동자, 이들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
- 위험사회와 복지 팀 _ “노숙인 등 홀리스 처우 개선”
- 포용사회와 다양성 팀 _ “북한이탈주민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지원 개선 방향”

학습 소모임 지원

- 읽기 모임을 가장한 수다회 _ 주요 선언문 읽고 나누기
- 책 읽고 만남 독서모임 _ 기본과정 3기 참고도서 읽고 의견 나누기
- 일상다반사 _ 예술 작품을 통해 인식 영역 넓히기

“2022 대선 이후 다시 만난 노회찬”

노회찬정치학교 기본과정 3기

2022.5.7.~2022.7.2

매주 토요일 8주간(대면 수업)

등록 17명, 수료 15명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수강생들이 참여한 기본과정 3기는 총 8주간 강의 토론(10강), 참여형 워크샵(3강), 프로젝트 모둠활동(7강)을 진행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정치적 관점을 형성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문제 정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오재영추모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학습 소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노회찬정치학교 심화과정 2기

2022.10.15.~2022.12.17

매주 토요일 10주간(대면 수업)

등록 16명, 수료 14명

심화과정 2기는 총 10주간 기초소양 강의(5강)/워크샵(1회), 한국 사회 불평등과 대안 강의 토론(6강), 프로젝트 강의 실습/모둠활동(11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모둠활동은 전직 지방의원들이 멘토로 함께 하면서 주제 탐색과 대안 찾기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도 시간을 내서 관련 자료를 찾고 현장활동가, 이해당사자, 국회의원, 전문가를 인터뷰하면서 관련 조례 제정안, 법률 개정안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젝트 모둠 결과

- 노동복지A 팀 _ “평택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에 관한 지원 조례”
- 노동복지B 팀 _ “SPC 중대재해 사례 분석(SPL 제빵기사 끼임 사고)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관한 고찰”
- 부동산주거 팀 _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 대책, 빈곤 노인의 주거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
- 젠더인권 팀 _ “성별 임금격차와 성 평등 임금 공시”

학습 소모임 및 프로젝트 후속 활동

- 좌우간에! 정치사상으로의 산책 _ 서구 정치사상 탐구
- 부동산과 주거권!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_ 프로젝트 후속 활동

지방선거 출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치학교 1기, 2기와
심화과정 1기 졸업생 5명이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재단 3기 이사진 참여

올해 1월부터 김가영 졸업생
(정치학교 1기, 심화과정 1기)과
이채은 졸업생(기본과정 3기,
심화과정 2기)이 노회찬재단의 3기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학교 발전방안 연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노회찬정치학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강상구, 조혜민)을
진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노회찬”이란 이름이 붙은 정치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반가웠던 곳. 함께 살아가고 연대할 수 있는 동지와와 만남이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털어놓을 수 있는 소중한 울타리. 그리고 직장 내 차별의 당사자이자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였던 누군가에게 불평등을 함께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의지를 안겨주었던 터전.
— 바로 수강생들이 남겨주신 ‘노회찬정치학교’에 대한 기억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함께 나눕니다.

“수업 첫날, 젊은 기운으로 가득한 교실, 유연함과 친절함, 서로를 향한 적극적인 배려, 열의로 가득한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들의 눈빛, 질문의 내용에 놀랐다... 소심하지만 소란스럽게, 미미하지만 강력하게, 슬픈 현실이지만 유쾌하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삶의 자리에서 소신 있는 행동가로, 뜨겁게 살아가는 노회찬정치학교 1기 졸업생이 되겠다” — 정치학교 1기 졸업생 윤선주

“노회찬 정치학교를 수강하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문장은 ‘정치는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분배, 치우치지 않은 분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유언은 제게 한 사람이라도 더 공감하고 ‘그들’이 아닌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그들’이 ‘당신’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 정치학교 2기 홍주리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고 정책을 만들고 표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 좋은 정치를 발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노회찬이라는 좋은 레퍼런스(reference)를 바탕으로 이를 고민하려는 사람들에게 정치학교 입학을 추천하고 싶다” — 심화과정 1기 졸업생 백상진

“대구에서 노회찬 정치학교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까지 왔다. 불평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해 공감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꿈을 꾸는 여러분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 — 기본과정 3기 졸업생 김종훈

“지방에서 정치학교 출석을 위해 매주 서울행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빠지지 않고 졸업을 꼭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긴다.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 할수록 양극화되고, 고착된 불평등을 확인하며 한국 사회에 희망은 있는가 실망의 연속이지만, 곳곳에서 애쓰며 연대하는 활동가들을 보며 다시 희망을 보고 함께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 심화과정 2기 졸업생 임명희

“노회찬”



찬, 지금 여기”



2022년에도 ‘6411 투명인간’들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각종 토론회와 정책 연구,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진보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가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노회찬비전포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



노회찬 4주기 추모토론회
 2022.7.20.(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치인의 말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시대에, 노회찬재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사학자들과
 노회찬의 말이 주는 함의를
 되새기면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학자들은 “수사학적 품격을
 갖춘(김현, 서울대)” “기억
 전달자(안성재, 인천대)”이자 “국민을
 살리는 ‘촌철활민’의 말하기(하병학,
 가톨릭대)”로 노회찬 말하기의 특징과
 의미를 살렸습니다.

제 6공화국을 넘어 새로운 공화국으로



노회찬의원 4주기 정책토론회
 2022.7.13.(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07년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노회찬은 ‘새
 세상 선언’이라는 비전과 ‘제7공화국
 11개 테제’라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전략을 내놓으며 민주노동당
 집권의 꿈을 향해 달려 나갔습니다.
 4주기 정책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진보 정치의 과제’와
 ‘새로운 복지국가의 요소들’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정치/노동/생태/
 젠더 측면에서 현실 진단과 대안
 모색이 이어졌습니다.

2 나라비전만들기

“정치리더란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 노회찬

노회찬재단은 한국 사회의 크고 작은 개혁과제를 제기하며, 우리 사회 비전에 관한 공론화의
 장을 열어왔던 노회찬 의원의 활동을 계승해 나갑니다.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해당
 개혁과제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배달플랫폼의 보이지 않는 손, 알고리즘



배달플랫폼 AI 알고리즘 검증실험결과 발표 토론회
2022.10.13.(목) 전태일기념관 2층 올림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음식 배달 시장 상황과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조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배달료 체계와 불투명한 알고리즘 개선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이에 노회찬재단과 라이더유니온은 <배달플랫폼 배차방식 및 안전 검증 실험>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알고리즘 배차의 효율성, 플랫폼별 노동강도 및 소득 차이, 신호 준수 및 안전 주행과 관련한 검증 실험과 함께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 알고리즘 규제 관련 대응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의 과제와 체제 전환



기후정의운동의 과제와 체제 전환
비전 탐색 토론회
2022.12.23.(금) 노회찬재단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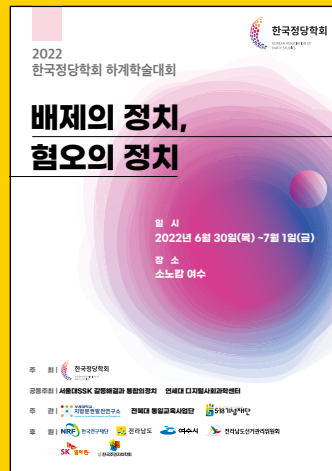
노회찬재단과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가 공동으로 9.24 기후정의 행진을 비롯해 기후정의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탈성장장치 재생산” 등 체제 전환의 담론과 정치 지형을 살펴보고, 체제 전환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2022.10.22.(화)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한국의 반지성주의 정치



한국 반지성주의 정치의 구조와 기원
패널 토론
2022.6.30.(목) 여수 소노캄

노회찬재단은 ‘혐오의 정치, 배제의 정치’를 주제로 열린 2022년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경희대학교 실천교육센터와 함께 <한국 반지성주의 정치의 구조와 기원> 패널을 진행했습니다. 학계 연구자와 정치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반지성주의 정치의 역사적 기원과 지속 구조, 사회경제적 맥락과 행태적 특성, 향후 극복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돌봄 하루

돌봄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돌봄 제공 노동자로서의 돌봄 노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가족의 일상성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회찬재단은 현대사회의 필수 노동인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돌봄 노동자의 돌봄 하루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언제나 사회적 약자 곁에 함께하고자 했던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노회찬’ 4주기 추모제는 7월 23일(토) 오전 11시 노회찬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석 모란공원 묘지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유족대표 김지선 님과 조돈문 이사장의 인사말과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추모사에 이어 노회찬 약력 소개, 노회찬의 벗 장석 시인의 추모 시 낭송, 정가 보컬리스트 정마리와 <노래모임 6411>의 추모공연, 참가자 참배와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돈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버스를 띄울 때는 우리 사는 세상에 희망이 별로 안 보일 때”라며 “여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면 희망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지선 여사는 “정의당이 힘든 과정에 있지만 지혜롭게 잘 헤쳐 가고 옆 동료들 알뜰하게 살피면서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찬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줬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추모제 〈노회찬의 시선, 2022〉



2022.7.23.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3 추모사업

노회찬 4주기를 맞아 7월 4일부터 23일까지 〈노회찬의 시선, 2022〉를 주제로 노회찬을 추모하고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추모주간 동안 마석 모란공원에서 4주기 추모제를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 추모전시관 운영, 추모 연극 〈산재일기〉 공연, 추모 토론회와 정책토론회, 회원 재단 방문의 날, 노회찬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추모전시

〈소통과 공감의 정치인, 얼리어답터 노회찬〉



2022.7.4.(월)-23(토)

노회찬아카이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세상이 돼버린 지금, 〈소통과 공감의 정치인, 얼리어답터 노회찬〉을 주제로 4주기 추모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추모전시를 통해 한없이 따뜻하고 든든했던 ‘노회찬식 말하기’가 약자들에게 얼마나 큰 무기였는지 다시 한번 공감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주기 온라인 전시관 구성

- 섹션1 좌사우포, 쌍권총을 찬 노회찬
- 섹션2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연주하다
- 섹션3 사진으로 기록한 30일 천막 단식농성장
- 섹션4 변화를 꿈꾸게 한 뉴미디어 스타
- 섹션5 그가 남긴 ‘최초’들
- 섹션6 ‘우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삼성 X파일

재단 방문의 날 및 유품전시회

〈노회찬평전〉 이광호 작가와의 만남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노회찬 이야기

1차 2022.7.16.(토) 오후 2시 / 2차 7.21(목) 오후 7시

2023년 발간 예정인 〈노회찬평전〉 이광호 작가와 함께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노회찬의 삶’을 주제로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단을 방문한 시민들은 대중과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활용했던 얼리어답터 노회찬을 주제로 전시 중인 〈노회찬의 서재 봄〉 기록관을 관람하며, 노회찬이 사용했던 블랙베리, 아이폰 등 손때 묻은 그의 20여 점의 유품전시를 돌아보며 소통과 공감의 정치인 노회찬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모연극

〈산재일기〉



022.7.4(월)~10(일) 월~금 오후 7 / 토~일 오후 4시

전태일기념관 2층 올림터

전태일기념관에서 일주일간 진행한 추모 연극 〈산재 일기〉는 사고 순간의 비극을 넘어 노동자와 가족, 지인들이 평생에 걸쳐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복합적인 삶의 문제임을 함께 고민하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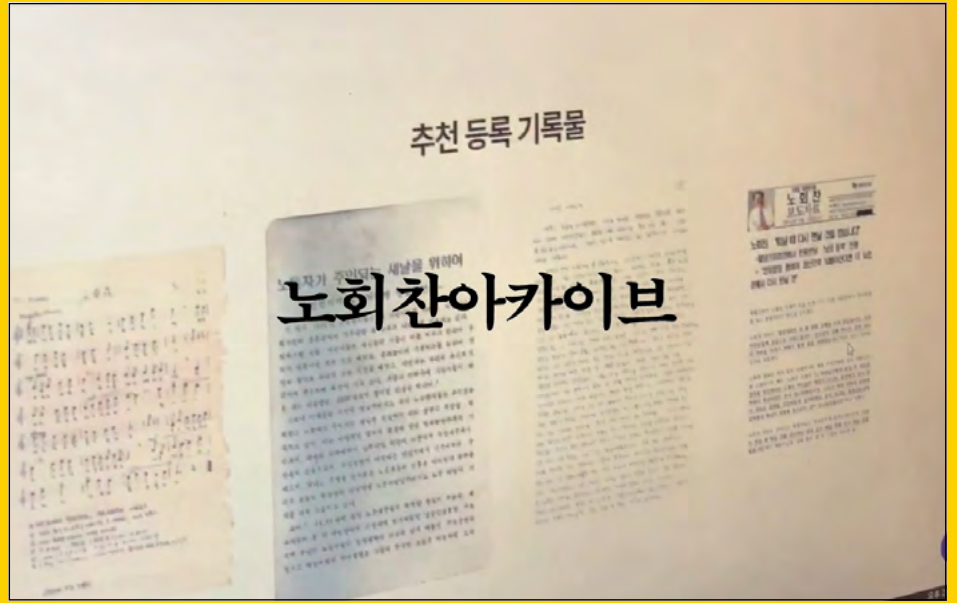


세만명이 아니라
이이경 등장 세상으로
꿈꿈유채결명기





약 8,684건의 기록물이 담긴 아카이브로서, 시가별, 주제별, 출처 및 형태 분류를 통해 보다 쉽고 의미 있는 접근이 가능토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한 ‘기록 콘텐츠’를 묶어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추모주간마다 진행되었던 ‘온라인 추모전시’ 역시 제공되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rchivecenter.net/hcroh>

4 노회찬아카이브 구축 및 노회찬평전 출간 사업

기록물의 지속적인 수집·등록·관리 및 콘텐츠 재생산을 통해 노회찬의 삶과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체계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 발자취를 기록하고 노회찬의 꿈을 다시 되살려 이어가는 노회찬 정치의 교본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2019년 7월부터 시작한 노회찬평전 출간 사업은 노회찬평전 기획위원회(위원장 김창희)를 통해 원고를 최종 마무리하고 출판사(사회평론)에서 편집 작업 중입니다. 올해 5주기에 출간을 앞두고 있는 <노회찬평전(가제)> 집필은 이광호 작가가 맡았습니다.

숫자로 보는 <월간 노회찬>

시즌1 (2022)

- 강연 횟수 총 6회
- 강연 참석자 총 242명
- 강연 시청자 총 3,373명
- 강연자 총 6명

월간 노회찬 다시보기



5 회원사업

<월간 노회찬>은 노회찬재단이 정치, 경제, 인문,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후원회원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배우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 정기 강연/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월간 노회찬>은 故 노회찬 의원이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발행한 대국민 의정 보고서 명칭이기도 하며,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으로 살아온 정치가 노회찬이 한 달에 한 번, 응원해 주신 여러분의 곁에 잊지 않고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매월 1회 강연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생중계 참여 및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1회

“다가오는 미래에서 바라볼 진보의 이정표”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진보’의 현주소는 어떠한지부터, 힘의 대립과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이 상상 속 우려가 아닌 다시 현실의 단어가 돼버린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더 나은 가치를, ‘진보’가 보여줘야 할 가치와 상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한 공감과 대안”이라는, 익숙하지만 울림이 있는 힌트에 대한 확인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2회

“변하고 있는 노동,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전혜원
시사인 기자

기존의 노동 패러다임의 해체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사각지대의 확대, 보호받는 노동이 일종의 특권이 되어버린 현상, 그리고 갈등. 전혜원 기자와 함께 얽혀 있는 노동 문제의 실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노동의 실체, 노동의 사각지대를 프로파일링 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3회

“21세기판 모던타임즈, 플랫폼 노동”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지난 19세기, 우리 인간이 기계의 부품이 되었다면,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인간은 컴퓨터의 부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혁신의 탈을 쓴 플랫폼,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의 실체를 마주했던 시간.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경쟁의 장에서, 파편화된 노동으로 온몸을 부딪혀 왔던 노동자와 함께, 몰 인간적 디지털 혁명과 인간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회

“시험과 능력주의는 정말 모두에게 공정한 계층 사다리일까?”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 우리 사회를 떠도는 ‘공정 담론과 능력주의’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정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게 하고, 기득권의 세습과 권력 독점을 강화하는 ‘불평등을 심화하는 현혹의 이데올로기’라는 민낯에 대한 폭로. 우리와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란다면 우리가 다시 곱씹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5회

“우리가 잊혀진 사회, 그 사회가 바로 비문명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포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사회적 효율성을 내세우며 나치 정부가 저지른 ‘자국 장애인 학살 정책’ <T4>로 시작했던 강의. “잊혀지지 않기 위한” 한 사람의 투쟁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이동권”은 사람이자 시민인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본권이고, 동등한 구성원일 수 있도록 하는 “마땅한 권리”라 말하는 박경석 선생님의 외침. “우리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오늘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 외침이 큰 여운을 남깁니다.

6회

“프리랜서? 인디펜던트 워커? 본질은 노동입니다”



권지현
방송작가, 방송작가유니온 영남지회장

방송이 좋아서 일을 시작했지만, 자신이 겪어온 부당함과 억울함이 결국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라 불리지 않아서 비롯된 문제였음을. 그래서 20년 방송의 내용을 담아 풀어내는 그녀의 진솔한 목소리를 빌어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않을 때, 그것이 숨기는 부조리의 이야기. 삶과 분리될 수 없는 노동, 결국 인간다운 삶이란 인간다운 노동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었던 문화인 노회찬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된 <노회찬재단 함께데이>는 영화, 전시, 뮤지컬 등 엄선한 문화공연을 회원 및 시민과 함께 관람하고 소감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네 차례에 걸쳐 많은 회원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제3회 4월 28일(목) 19시, 다큐영화 <너에게 가는 길>, 아트하우스 모모(이화여대 내)



제4회 6월 16일(목) 19시, 다큐영화 <미싱타는 여자들>, 아트하우스 모모(이화여대 내)



제5회 10월 13일(목) 19시, 다큐영화 <학교 가는 길>, 아트하우스 모모(이화여대 내)



제6회 12월 3일(토) 17시, <꽃다지 콘서트>, 문화예술복합플랫폼 상상마당 홍대

시민사회 원로회원 및 고문단 모임

재단 고문단 및 시민사회 원로회원의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통해 재단 사업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제언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30일(화) 11시에 스무 분을 모시고 오찬간담회로 진행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소박하게 후원회원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역 활동 콘텐츠를 통해 권역별 지역 모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큐영화 <노회찬 6411> 전국 순회상영회를 준비하며 형성된 19개 지역 주체를 중심으로 노회찬 정신의 지역 확산 및 후원회원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축된 지역 모임 활동을 전해 드립니다.

상하이 모임

상하이 모든 여성 단체들이 모였던 3.8 세계 여성의 날에는 장미꽃을 나누며 노회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하이 교민들의 축제 ‘한풍제’에서도 사회연대 굿즈를 판매하며 재단을 교민사회에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던 상하이 모임에서는 2023년에는 ‘여성 단체 영화제’를 통해 <노회찬6411> 상영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 모임

지난 10월에 악기(첼로)를 기증했던 원주 북원중학교 예술드림팀이 <태장이음오케스트라 지역상생 음악회>를 많은 지역학생들과 원주시민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꿈터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음악회에는 재단 강원모임 대표단(대표 양형모, 사무국장 김태성)이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와 ‘꿈터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청주 모임

청주 모임에서는 첫사업으로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노회찬의원 4주기 추모 콘서트<노회찬가>를 청주 ‘다락방의 불빛’에서 열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총망라된 이 행사는 퍼포먼스 ‘노회찬을 그리다’ 합동 공연, 추모 시 낭송, 추모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했던 추진 주체들과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모임

회원 모임 중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대구 모임은 2022년도 총회를 수성주민광장에서 개최하고 2기 운영진을 선출했습니다. (대표 이춘곤, 운영위원장 김성년 등 운영위원 6인). 1기 사업 보고와 평가에 이어 향후 사업 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노회찬의 삶과 정치철학을 이어가고 확산하기 위해 ‘노회찬을 공부하는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11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 이 소모임이 첫 번째로 선정한 책은 창비에서 출간된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 책은 노회찬의 마지막 강연집이기도 합니다. 노회찬을 읽고, 말하고, 듣는 편안한 자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모임

사회적 약자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노회찬 4주기 추모행사를 ‘노동자 노회찬을 그리며’를 주제로 부산 서면 주디스태화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 그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부산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며 노회찬재단을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울산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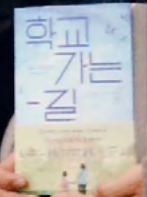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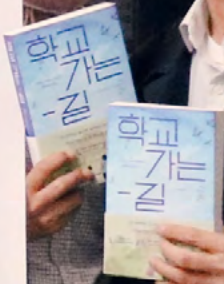
울산에 있는 간월재 트래킹을 하며 재단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능하면 정기모임을 갖고 작게라도 지역 활동을 모색하자고 결의를 다졌던 알찬 초동 모임이었습니다.



arthouse
MOMO

제5회 노회찬재단
후원회원 함께데이

<학교 가는 길> 상영회
감독·출연진과의 대화
아트하우스 모모
오후 7시



노회찬재단

전태일기념관에서 진행한 제3회 노회찬상 시상식은 이덕우 노회찬상 심사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수상자 발표에 이어, 노회찬재단 조돈문 이사장과 유족 대표가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수상자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이어 2부 특별 강연을 통해 제3회 노회찬상 수상자들이 그간 실천해 온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노회찬재단은 지난 2019년 사회 약자들의 권리를 확대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회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회 노회찬상은 이탄희 변호사(21대 국회의원)와 김미숙 선생님(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제2회 노회찬상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쟁없는세상>이 수상했습니다.

제1회 노회찬상(2019년)

- 노회찬 정의상: 이탄희 변호사
-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제2회 노회찬상(2020년)

- 평등부문: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의부문: 전쟁없는세상

제3회 노회찬상(2022년)

- 본상: 라이더 유니온
- 특별상: 다큐영화 <너에게 가는 길>, 비정규 노동자 쉼터 <꿀잠>

6 노회찬상

제3회 노회찬상은 <라이더유니온>을 선정하고, 특별상에 다큐영화 <너에게 가는 길>과 <비정규노동자 쉼터, 꿀잠>을 선정하였습니다. 노회찬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500만 원을, 특별상은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노회찬상

〈라이더유니온〉 선정 이유

“우리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조차 못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노회찬정신과 맞닿아 있는 조직입니다. 또한,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의 현장에는 항상 라이더유니온이 있었고, 라이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과 부합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는 깨달음으로 제 3회 노회찬상을 라이더유니온에게 수여합니다.”

라이더유니온 수상소감

“당장 올 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은 무성하고 주변에선 지친 활동가들도 보이는 형편에서 노회찬상을 통해 라이더유니온 전 조합원들과 함께 노회찬 의원님의 격려와 응원의 뜻, 깊이 간직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상

다큐영화 〈너에게 가는 길〉 선정 이유

“사회적 고립 상황에 처한 성소수자의 생존투쟁뿐 아니라, 성소수자 포용이, 혈연적 유대를 넘어 어떻게 사회적 연대로 확장하고 발전해 나가는지도 그리고 있고, 우리는 두 성소수자 부모 이야기를 통해 소수자 인권보장이라는, 21세기 민주화가 얼마나 힘겹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자·젠더 문제가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 여전히 왜곡된 채 소비되는 현실에서 ‘너에게 가는 길’이 기여하는 바가 특별합니다.”

변규리 감독 수상소감

“노회찬 의원님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 금지법은 분명히 제정될 것입니다. 그 길에 더 열심히 함께 하라고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상

〈비정규노동자 쉼터, 꿀잠〉 선정이유

“꿀잠은 세상에서 외면당했던 이들이 이곳에서는 소중하고 존중받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현대의 공간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은 아들을 잃은 후 ‘꿀잠’에서 머물면서 ‘국가가 버린 이들을 보듬던 곳이 꿀잠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매년 4천 명이 다녀가는 쉼터,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낡은 건물을 고치고 수선’하는데 힘을 보태고, 구석마다 사연과 역사가 쌓인 ‘공공재 꿀잠’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염원합니다.”

꿀잠 수상소감

“이번 특별상은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이자, 꿀잠이 지향하는 연대의 가치를 드높이자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꿀잠이 최근 재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조금 더 힘내 곳곳이 자리를 지키라는 응원이라고 여깁니다.”

2022년도 제3회

노회찬상 시상식

노회찬상

일시 2022.2.9() 전태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나라 노회찬재단

노회찬재단은 노회찬의 정신을 이어받아 2022년 제114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 평등 메시지를 발표하고, 사회 각계 여성노동자 1,500명에게 ‘노회찬의 장미꽃’을 전달했습니다. 6411 새벽 첫차를 타는 여성노동자와 국회 청소노동자에게 장미꽃을 전달하고, 전태일재단과 함께 상암 MBC 앞 광장에서 여성 방송노동자에게 ‘빵과 장미’를 선물하는 공동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방송계의 불공정 노동이 개선되어, 방송작가를 비롯한 여성 방송 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7 6411 사회연대사업

노회찬재단은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이면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던 노회찬의 뜻을 이어 <노회찬의 장미꽃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산재>와 <6411의 목소리> 연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투명인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회적 약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심지원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기지원사업은 “누구나 약기 하나쯤을 다룰 수 있는 나라”를 꿈꾸던 노회찬의 소망을 담은 작은 실천입니다.

노회찬은 지난 2007년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산재 사망은 자본의 살인”이며, “국가의 살인방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노회찬은 지난 2017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 법안>을 최초로 입법 발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하여 지난 2021년 제정되었지만, 기업들이 갖은 기술을 동원하여 법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다치고 아픈 이들은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2021년에만 노동자 12만 2천여 명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계 숫자는 현황을 보여줄 뿐, 산재를 경험한 이들이 사고 이후 평생에 걸쳐 영향을 받은 삶의 이야기가 생략돼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산재는 내 곁에 있고, 우리 주변 노동자의 삶의 문제임을 동료 시민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노회찬재단은 한겨레21, 노동건강연대와의 공동기획으로 산재 노동자 인터뷰 기사 <내 곁에 산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동료 시민들과 함께 노동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에 대해 희망의 끈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2022년 4월, 평소 교류하던 한겨레신문 팀장으로부터 매주 노동자의 글을 연재하고 싶은데, 노회찬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6411의 목소리>는 시작되었습니다. <6411의 목소리>는 6411번 새벽 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던 이주민과 청소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존재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투명인간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소외된 채 자신의 노동을 감내하면서도 사회적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은 6411 당사자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이들에게 스스로 발언할 기회를 줘 이 시대 일과 노동의 문제를 환기하고 조명해보고자 했습니다.

2022년 5월 타투노동자의 글로 시작하여, 콜센터, 주얼리, 방송작가, 재일동포, 성소수자, 봉제, 뮤지션, 배달, 대리기사, 장애인, 건설, 게임회사, 연극배우, 물류, 이주여성, 호텔, 도축, 면세점, 호텔, 탈북, 골프장, 영케어러, 청소, 특성화고 출신, 어부, 농부, 여행사, 미용실, 주차 노동자 등 34명의 노동자의 글이 실렸습니다(2022년 12월말 기준). 이 모든 글들은 우리 사회가 애써 주목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① 심 지원 사업



제1차 '봉제인공제회' 워크숍 지원

- 7월 16일~17일
- 우리밀 모래소 연수원

제2차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기관
'오늘의 여성' 심신단련 프로그램 지원

- 11월 14일~15일
- 컨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청소·돌봄·봉제 등
6411노동자와 사회 약자에게
휴식을 지원하는 심 지원
사업은 '봉제인공제회'(장소:
우리밀 연수원)와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기관인
'오늘의 여성'(장소:
컨싱턴리조트 설악밸리)을
선정 지원했습니다.

② 악기 지원 사업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나라'의 상징
사업인 악기 지원사업은 설립
초기부터 악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학교 및 시설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4차 희망악기 기증식은
10월 6일 복원 중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주 복원
중학교 김영복 음악교사를
중심으로 태장동 지역의
초중고생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태장이음
예술터'에 <첼로>를 전달하고
오케스트라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류수민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③ 노회찬장학금 수여식



노회찬의원 4주기를 맞아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활동가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노회찬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학서열과 학력차별이 없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를 꿈꾸었던 노회찬 의원의
'함께 맞는 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노회찬재단이 추천을 요청한 공익 재단
및 시민사회단체, 노회찬재단 지역모임에서 추천한 활동가의
자녀 중, 전국 초등학교생 3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등 총
10명을 선정하여 각각 2백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번 장학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의 자녀 지원을
위해 한 후원회원의 지정 기부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이번
장학금 지원을 계기로 향후 지속 가능한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노회찬 의원의 '함께맞는비' 정신과 '6411'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④ 시민사회단체 연대사업

시민사회단체 간 긴밀한 사회연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된 연대사업은 25개의 기부단체와 협력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연대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보다 의미 있는 연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⑤ 사회연대굿즈

‘투명인간’과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했던 노회찬의 뜻을 담아 사회연대굿즈 <경비노동자편>, <청소노동자편>을 제작해 스마트스토아 <6411희망가게>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연대굿즈를 통해 ‘일상 속 연대’와 우리 사회에 ‘연대의 습관’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소박하게 기획된 사업입니다. 노회찬과 재단의 철학이 반영된 소장 가치가 있는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여 지지층의 만족도를 넓히고 굿즈라는 상품을 매개체로 하여 ‘연대’의 의미를 실천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자의
입을 연
외
이름

BLUPHA

TEA

<민들레>라는 이름의 유래는 노회찬 의원이 남긴 어록에서 출발합니다. 2009년 8월 엄혹한 정치 상황에서 ‘민들레 연대’를 제안하며 “‘민(民)들’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들레 자체가 서민의 끈질긴 생명력, 생활력을 상징한다. 즉, 이 명칭에는 민주주의의 실제 주인인 민을 중심에 세우고, 그 삶에 뿌리내리며 그 살림살이를 실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기록으로부터, 마침내 이름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44호(2023.1.18.)까지 발행을 이어가고 있는 <민들레>에는 재단 후원의 계기를 소개하는 ‘후원회원 이야기’와,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각자 노회찬 의원과 얽힌 추억을 담아낸 ‘문화인 노회찬’ 코너를 비롯하여, “<노회찬 아카이브> 정기 연재”를 거쳐 “<월간 노회찬> 행사 다시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후원회원 모임 소식을 더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내용을 전달코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구독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민들레> 보러가기



8 소식지 <민들레>

노회찬재단은 회원들과 회원들끼리 손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2018년 12월 소식지 준비 1호를 발간했고, 그 후로 여러 차례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2019년 5월 27일 창간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방극장에서 그를 만납니다
33호 2022.01.27



'노회찬의 장미꽃'을 전합니다
34호 2022.02.28



'장미꽃'부터 '정치학교'까지
35호 2022.03.31



<월간 노회찬> 배달 왔습니다!
36호 2022.04.28



'노회찬'이란 이름으로 모인 '우리'
37호 2022.06.03



노회찬의 시선, 2022
38호 2022.07.01



노회찬의 시선, 4주기의 기록
39호 2022.07.28



노회찬재단의 하반기 미리보기
40호 2022.09.01



정치학교 심화과정 2기, 출발합니다
41호 2022.10.07



노회찬의 "함께" 잘 산다는 것
42호 2022.11.11



<월간 노회찬> 시즌1 돌아보기
43호 2022.12.13



우리가 기억하는 "노회찬재단 2022"
44호 2023.01.18



ROH HOE CH



비

424

AN



서희

비

재단 사람들

이사장

조승수 제17-18대 국회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민선 1기)

사무총장

김형탁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전 정의당 부대표

특임이사

강상구 전 정의당 대변인 및 교육연수원장,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이사

김가영	정의당 중앙당 당직자, 노회찬정치학교 1기, 심화과정 1기 수료
김창희	전 프레시안 편집국장, 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
권김현영	여성학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금동혁	(주)우리밀 대표이사, 전 월간〈말〉 편집인 겸 편집국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전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민정연	희망의 노래 꽃다지 기획자,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위원
박종현	정의당 사무총장, 20대 국회 여영국 의원 보좌관
신희주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정광필	서울시 50+ 인생학교 학장, 이우학교 초대 교장

감사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임영탁	임영탁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상 2023.1.4 제3기 임원진)

사무처

김형탁	사무총장
박규님	운영실장
이강준	사업기획실장
조동진	정책기획실장
이성재	홍보국장
이종민	교육부장
박미리	운영부장

후원안내

노회찬재단은 독립적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추모 및 아카이브 사업, 노회찬정치학교 등 재단의 모든 사업은
100% 후원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회찬재단의 소중한 길동무가 되어
그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주세요.

후원문의

- 전화 02-713-0831
- 팩스 02-713-0830
- 문자(수신전용) 010-8356-6411

후원계좌

- 농협은행 301-0243-3091-41
- 국민은행 463501-01-281299
- 예금주 (재)평등하고공정한나라노회찬재단

온라인 후원하기



국회찬



대한민국국회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재단법인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홈페이지 <http://hcroh.org>
페이스북 [hcroh6411](https://www.facebook.com/hcroh6411)
인스타그램 [@rohccamp](https://www.instagram.com/rohccamp)
유튜브 [chanblog6411](https://www.youtube.com/channel/UC...)

발행일
2023년 4월 18일

발행처
노회찬재단

발행인
조승수

기획 및 편집
노회찬재단

디자인
일상의실천
everyday-practice.com

언제나 낮은 곳을 향했던 시선,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의 꿈

노회찬재단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02-713-0831

팩스 02-713-0830

문자 (수신전용) 010-8356-64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01동 1501호

노회찬재단